

최태윤 개인전 <자신을 돌봄: 일기와 편지>

2020.06.04 - 06.28

문의 금다듬 (이메일 factory2.seoul@gmail.com / 전화 02-733-4883)



1. 전시 개요

전시명 자신을 돌봄: 일기와 편지 (The Care of the Self: Journal and Letters)

작가 최태윤

장소 factory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0길 15)

기간 2020년 6월 4일 (목) - 6월 28일 (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오프닝 없이 진행됩니다.

관람 시간 화요일-일요일, 11-19시 (월요일 휴관)

기획 서새롬 (팩토리2 공동디렉터)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 창작산실

#최태윤 #자신을돌봄_일기와편지 #팩토리2 #TaeyoonChoi #TheCareoftheSelf #factory2
 @drwngrwng @factory2.seoul

2. 전시 소개

팩토리2는 2020년 첫 기획전으로 최태윤의 개인전 《자신을 돌봄 : 일기와 편지》(6.4~6.28)를 개최합니다. 최태윤은 뉴욕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이자, 교육자, 활동가입니다. 드로잉, 전자장치, 설치, 퍼포먼스를 통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며, 상냥함(gentleness), 포용(magnanimity), 정의(justice), 함께하기(solidarity), 생각 연결하고 나누기(intellectual kinship)를 주제로 작업합니다.

이번 전시는 ‘정체성 THE SELF’, ‘돌봄 CARE’, ‘기술과 발전 COMPUTATION’, ‘환경 HABITAT’, ‘배움과 교육 UNLEARNING’을 주제로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작가의 질문과 답을 공유합니다. 작가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자신의 일기를 통해 “자신을 돌보는 방법(self-care)은 무엇일까? 이기적이지 않은 방식(not selfish-care)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돌보는 행위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세상 또한 돌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보냅니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작가가 작년부터 뉴욕과 홍콩 등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떠올린 생각을 보여줍니다. 홍콩에서 일어난 시위를 보며 정치, 기관, 사회 운동에 대해 생각하고,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맞물린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다루며, 비장애중심주의와 장애인을 위한 정의, 신체의 중립성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번 전시는 2015년 갤러리 팩토리(現 팩토리2)에서 열린 최태윤의 개인전 《당신의 친구, 대화와 협업》의 인연으로 최태윤과 팩토리2가 다시 한번 협업하여 만들었습니다. 전시 기간 중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워크숍과 작가 토크를 진행하며, 상세한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팩토리2 웹사이트(factory483.org)와 SNS(@factory2.seoul)에 공지됩니다.

3. 작가의 글

자신을 돌보기.
조심스럽게 시작하기.
먼저 우리 자신을 유심히 들여다보기.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실망했던 일,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던 기억과 마주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따듯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과 좋은 친구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고, 내 주변 환경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기를 돌보는 일은 내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혹은 내가 사는 사회 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도 우정도 아닌 아주 느슨하고 밀접한 돌봄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모두 각자 정원을 가꾸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놀러 올 수 있게.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식물이 마음대로 자라도록 놔두기도 하지요. 자신을 돌보는 것은 어쩌면 그 정원을 관리하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정원에 어떤 식물, 동물, 사람, 사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둘러싼 시간은 어떻게 흐르는지 생각해봅시다.

[최태운 | 2020년 5월]

4. 작가 소개

최태운

taeyoonchoi.com

@drwngdrwng

최태운은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는 작가이자, 교육자, 활동가이다. 드로잉, 전자장치, 설치, 퍼포먼스를 통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며, 상냥함(gentleness), 포용(magnanimity), 정의(justice), 함께하기(solidarity), 생각 연결하고 나누기(intellectual kinship)를 주제로 작업한다.

《스피커스 코너 Speaker's Corner》(미국 뉴욕 아이빔 아트 앤 테크놀로지 센터, 2012), 《나의 친구여, 친구란 없다 My Friends, There is No Friend》(덴마크 오르후스 슈파니엔 19C, 2011), 《기술이 실패할 때 현실이 드러난다》(서울 아트스페이스 휴, 2007) 등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고, 중국 상하이비엔날레(2012), 미국 LACMA 아트 테크놀로지 랩(2014), 뉴욕 휘트니 미술관(2015),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2016) 등 여러 미술 행사와 기관을 통해 작품과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뉴욕 로어 맨해튼 문화위원회(2014), 피츠버그 카네기 멜론 대학 프랭크-라치 스튜디오 연구소(Frank-Ratchye Studio for Creative Inquiry)(2014), 서울 아트센터 나비(2006)의 아티스트 레지던시에 참여했고, 출판물 《도시프로그래밍 101:무대지시》(2010), 《안티 마니페스토》(2012)를 발간했다. 전시 《저항과 회복 Resistance and Resilience》(미국 버몬트주 베닝턴 대학 우스단 갤러리, 2012)를 기획했고,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2013)에서는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한 메이커스페이스인 '만들자 연구실'을 기획하고 운영했으며, 2019년에는 작가 미미 오누오하(Mimi Onuoha), 리투 기야(Ritu Ghiya), 네타 보마니(Neta Boman)와 함께 뉴욕 테크 진 페어(New York Tech Zine Fair)를 시작했다. 기술 운동가 나빌 하세인(Nabil Hasein), 소니아 볼러(Sonia Boller)와 함께 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콘퍼런스 「코드 에콜로지 (CODE ECOLOGIES)」를 개최했으며, 장애인 커뮤니티의 접근성과 다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조직하고 있다. 퍼블릭 스쿨 뉴욕, 대학가 점령 운동, 트리플 캐노피 퍼블리케이션 인텐시브 등 여러 대안적 교육 활동에 기여했고, 2013년에는 시적연산학교 School for Poetic Computation를 공동 설립하여 전자 공학, 드로잉을 통한 사회적 실천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NYU 티시예술학교의 인터랙티브 텔레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에서 강의 중이다. 미국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에서 디자인과 예술, 기술 과정을 수학했다.

5. 연계 프로그램

전시 기간동안 온라인과 팩토리2에서 워크숍 시리즈와 작가 토크가 열립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팩토리2 웹사이트(factory483.org)와 SNS(@factory2.seoul)에 공지됩니다. 첫번째 워크숍은 드로잉 워크숍으로 5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워크숍 1

마음 그리기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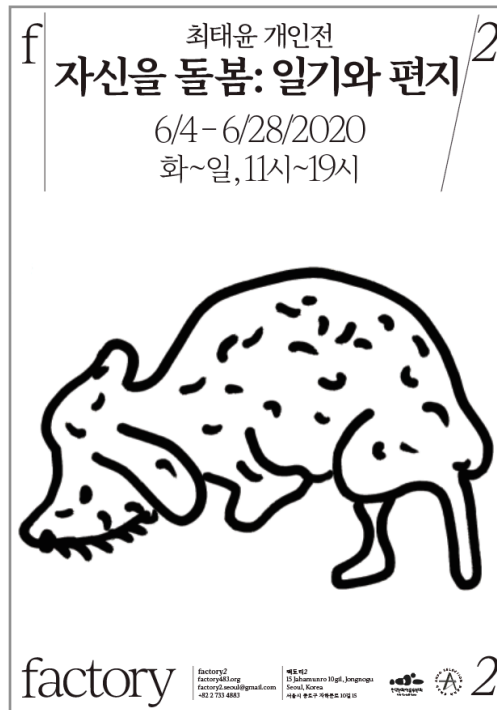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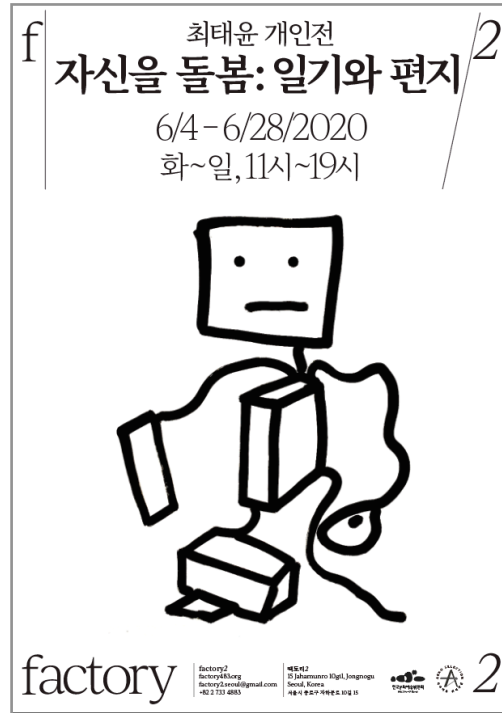
2020년 5월 26일 (화), 19:00-20:30

최태운 작가의 「마음 그리기 워크숍」이 5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작가는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한 참여자들과 함께 90분간의 드로잉 세션을 진행합니다.

워크숍의 주제는 ‘자신과 돌봄의 실천’입니다. 그리기의 행위가 돌봄이 될 수 있을까요? 참여자들은 그리기를 통해 자신을 돌봄을 받는 사람이자 돌봄을 주는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마주했고, 우리의 삶은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기억, 생각, 희망을 그리는 것은 지나간 고통 가운데 나 자신과 다른 이들을 다시 연결하고 격동의 시간에 평화를 찾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태운 작가는 그리기와 돌봄에 대한 개념을 탈학습하며, 이를 대안적 교육, 퍼포먼스 그리고 기술 연구를 통해 탐구합니다. 그는 ‘탈학습 unlearning’을 화해의 행위로 정의합니다. 작가는 이번 워크숍에서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상실과 어둠을 그려내며, 자기 자신, 타인, 생물, 그리고 환경과 화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를 권합니다.

「마음 그리기 워크숍」은 최태운 개인전 《자신을 돌봄 : 일기와 편지》의 일환입니다. 전시는 6월 4일부터 28일까지 팩토리2에서 열립니다. 워크숍 신청은 팩토리2 SNS(@factory2.seoul)에 공지됩니다.

6. 전시 포스터



factory

factory2
factory483.org
factory2.seoul@gmail.com
+82 2 733 4883

팩토리2
15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0길 15

2

7. 참고 이미지

- World which Worlds a Caring World, 2020, Drawing by Taeyoon Choi(Top Left)
- Distributed Web of Care, 2019, 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Photo by Minu Han (Top Right)
- Distributed Web of Care, 2019, 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Photo by Filip Wolak (Bottom)

